

이지그린텍, 대체에너지 문제없다!

실효성 의문에 대해 이상 전무 해명 ... 2007년 100억원 매출 기대

대체에너지 개발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지그린텍은 9월25일 기름에 물을 섞어 쓰는 자사의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해 모 방송사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지그린텍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 방송국 보도에서 자사 제품의 기름과 물의 혼합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분석결과 물과 기름의 혼합비율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지그린텍은 병커C유와 물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전체 에너지비용을 20% 가량 절약하는 촉매제와 혼합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 1사와 발전소 2곳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1월부터 매출이 발생해 2007년 100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모 방송사는 최근 이지그린텍이 개발한 대체에너지의 기름과 물 혼합비율이 실제 알려진 것의 3분 1 가량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26>